

암캐의 고에스트로겐 탈모증 1례

권현주, 최윤주, 정동희, 김승호, 김 환, 박성준*

삼성 에버랜드 동물병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 론: 암캐에서 발생하는 고에스트로겐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양측성의 대칭성 탈모, 외음부와 유두의 종대, 비정상적인 발정주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7년령의 암컷 포메라니언이 탈모와 이상 발정의 주 증상으로 삼성에버랜드 동물병원에 의뢰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증례는 7년령 암컷 Pomeranian 종으로 약 3년 전부터 등쪽 탈모 증상이 발견되었고 점차 배쪽과 등쪽으로 광범위하게 탈모가 진행되었다. 탈모는 목, 배쪽과 등쪽 가슴, 겨드랑이, 옆구리, 복부, 외부생식기 주위, 항문주위, 후지 내측, 둔부에서 심하게 관찰되었다. 2회의 분만 경험이 있었으며 분만 후 발정주기 및 기간이 단축되고 적갈색 분비물 등의 이상 발정을 보였고 발정과 함께 탈모 진행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탈모 외에도 소양증, 피부 및 피모 건조, 탈모 부위 색소침착, 외음부와 유두 색소침착, 피부 두께 증가의 증상을 보였고 그 외 전신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탈모 진행 초기 호르몬 검사(estradiol, cortisol, T4) 및 피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 혈액 화학 검사와 혈구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뇨검사에서도 정상이었다. 탈모 부위를 scraping 검사한 결과 외부기생충 감염과 곰팡이 증식을 관찰할 수 없었다. 대칭성 탈모와 이상 발정이 환자의 주증상이고 기타 피부 질환과 전신증상이 전혀 없으므로 탈모는 호르몬성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우선적으로 성호르몬과 관련된 검사를 하였다.

결 과: 혈중 total estrogen 수치는 229.8pg/ml으로 정상보다 3배 이상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상증상, 병력, 혈액검사를 토대로 난소자궁적출술과 피부 생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궁 내막은 수포형성 및 분비물을 포함하여 증식되어 있었으며, 난소 조직에서 다량의 난포와 자궁의 내막층의 증식이 확인되었고 피부 조직은 불완전한 형태의 모낭이 관찰되어 난소의 난포 발달로 인한 혈중 estrogen 증가로 자궁 내막 증식과 피부 조직 변화가 확인되어 고에스트로겐성 탈모증으로 진단하였다. 난소자궁적출술 후 피부와 탈모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약 3개월 후 정상적인 피모 재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상적 의의: 본 증례는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피부 검사에서 피부염에 대한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타 전신 증상은 없었다.

혈중 에스트로겐 증가로 나타나는 골수억제에 의한 혈액학적 이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초기에 탈모를 동반하고 점점 양측성의 대칭성 탈모, 외음부와 유두의 종대, 비정상적인 발정주기 등으로 임상증상이 진행되는 증례에서는 반드시 난소의 이상증을 의심하여야 하겠다.

*Corresponding author: parksj@cnu.ac.kr